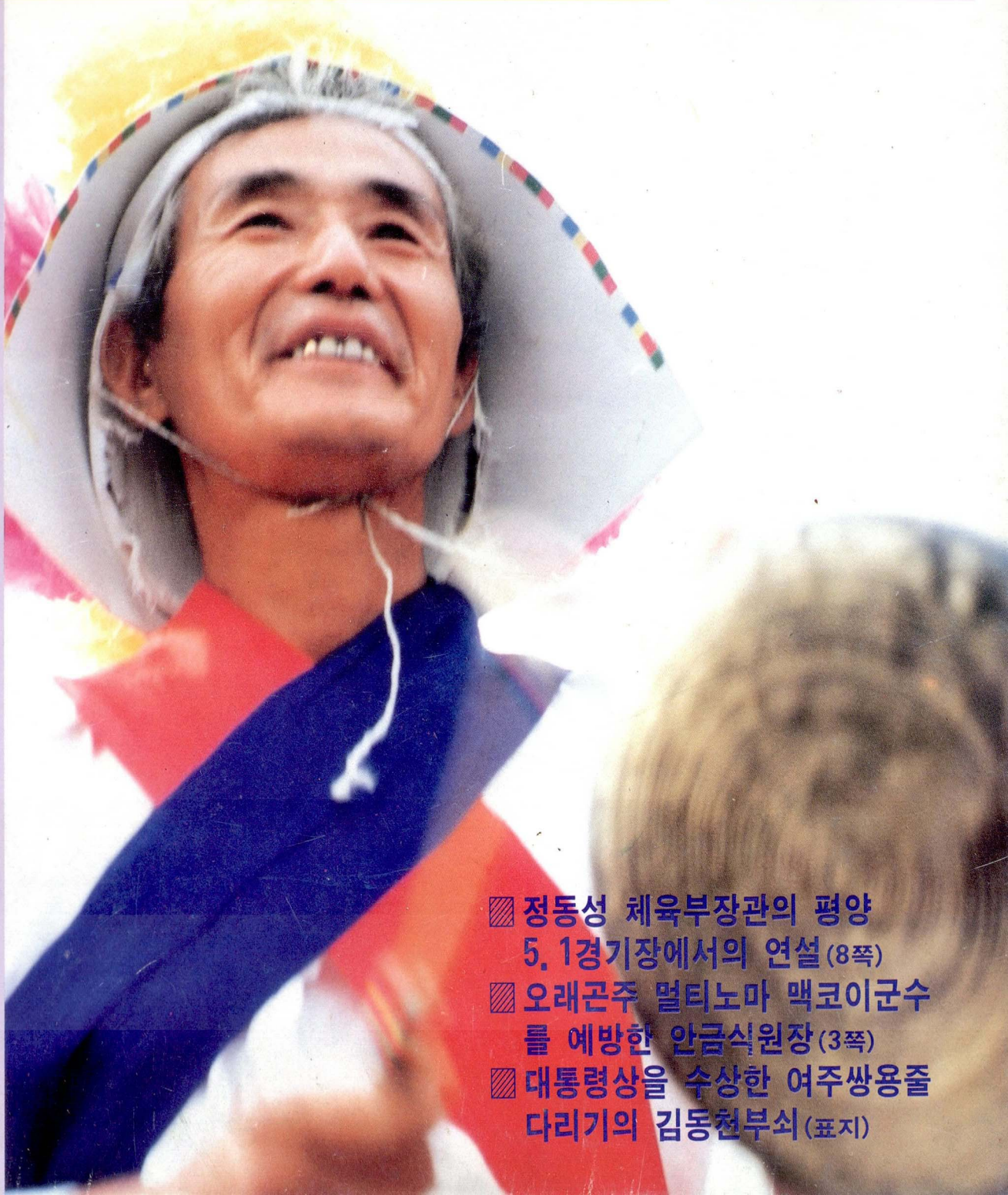


黃馬呂文化

발행겸 안 금 식
편집인
발행처: 여주문화원
여주읍흥문리74-2
(0337) 83-3450
83-3200



- ▣ 정동성 체육부장관의 평양 5.1경기장에서의 연설(8쪽)
- ▣ 오래곤주 멀티노마 맥코이군수를 예방한 안금식원장(3쪽)
- ▣ 대통령상을 수상한 여주쌍용줄다리기의 김동천부쇠(표지)

더불어 창출하는 향토문화

여강과 향맥

역수장마 부대껴,
천고를 삭혀온 마파람은 여울지고
산협 기슭의 장엄한 바위를 껴 안은 채
훗 떠나가는 잿빛구름 얼비쳐온 여강.

술한,
역사의 갈피마다 여주사람들의
예지를 아로새기고 오늘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는 그 여강을 따라,

선현들은 백운 거사 이규보 선생으로
인하여 이고장을 고려의 문학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찰랑대는 향아리에 넘칠 것 같이
절창의 여주편 명시가
동국여지승람에 아로새겨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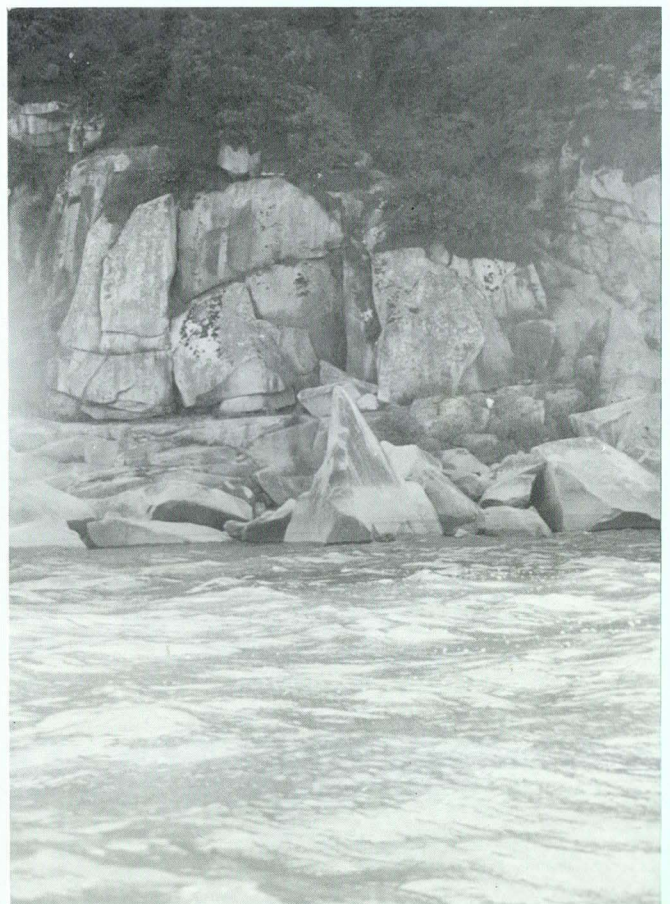
1883년 통신사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민영익 정사와 홍영식 부사가
모두 여주 사람들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싹을 틔운 역할을 한 자긍심 드높은
향맥이 맥맥히 어우러져 온
용마의 고장 황려땅 여주.

오늘도,
여강은 아련한 세월 속에 유유히
굽이쳐 흘러만 가고 있다.

1990년 마지막 달에

여주신문
24년사

여강 촌에서 자매관계를 위한



1

2

3

- ① 멀티노마군의 간판
- ② 여강의 저녁노을

4

- 드리운 강에 매생이 배가 운치를 더해
주는 풍경
- ③ 멀티노마군을 관류하는 콜롬비아강의
보네빌레댐의 유람선
- ④ 용마가 나왔다고 하는 여주의 술한
사연을 간직한 마암

미국, 오레곤주 멀티노마군까지 멀티노마 맥코이 군수와 안금식 여주문화원장



1989년 7월초 여주출신인 세계한민족대회장인 임용근씨와 오레곤주 멀티노마군 맥코이군수를 방문하여 여주군수의 자매관계 뜻을 전하는 안금식여주문화원장



아름다운
오레곤주의 황혼과 기러기떼



◁ 미국 오레곤주 멀티노마군의 맥코이군수로부터 자매 관계를 맺자는 공식 서한을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주출신 임용근 세계소수민족총연합회장을 통해 홍종대 여주군수에게 전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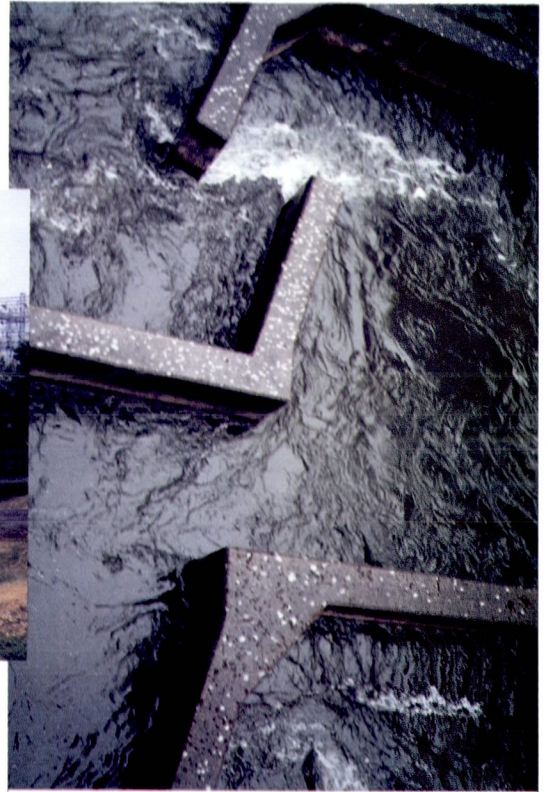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오레곤주
멀티노마군의
청사
청사의 높이가
20층이 넘는
빌딩이다.



1989년 7월초 미국오레곤주 멀티노마군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여
주를 소개하는 임용근회장과 안금식여주문화원장. 개방사회인 미
국의 지방의회의 광경은 유선방송으로 생방송되어 시민들은 안방
에 앉아서 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모든 의회가 공개로 돌아가고 있다.

멀티노마군에는 유명한 폭포가 있어 관광지로도
이름난 곳
콜롬비아강의 보네빌레댐에는 고기들이 오르나
릴 수 있는 수로가 있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러나 어류가 통행할 수 있는 수로가 없이 팔
당댐이 완공된 후 우리 여주에는 장어가 사라졌
다.





◁ 오레곤주 포트랜드시에
는 한인들로 구성된 생산
업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 조각유리를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접합시켜 창
문 현관문등에 다양한 조형
미를 이루게 한인들 손길에
서 제작되어 전 미주내 여러
곳으로 판로가 구축되어 미
쳐 만들어 내질 못하는 실정
이란다.

언제인가는 여주의 전승도
자기와 생활자기가 직접 미
국에서 생산 판매될 수 있도
록 검토 노력할 필요성이 있
다.



◁ 오레곤주 주지사 예비선
거에 출마했던 임용근씨와
역시 오레곤주 한국일보지사
장 김헌수씨가 은성 김종성
도예가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오레곤 한글학교는 자라나는 교포 2세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며 모국어인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포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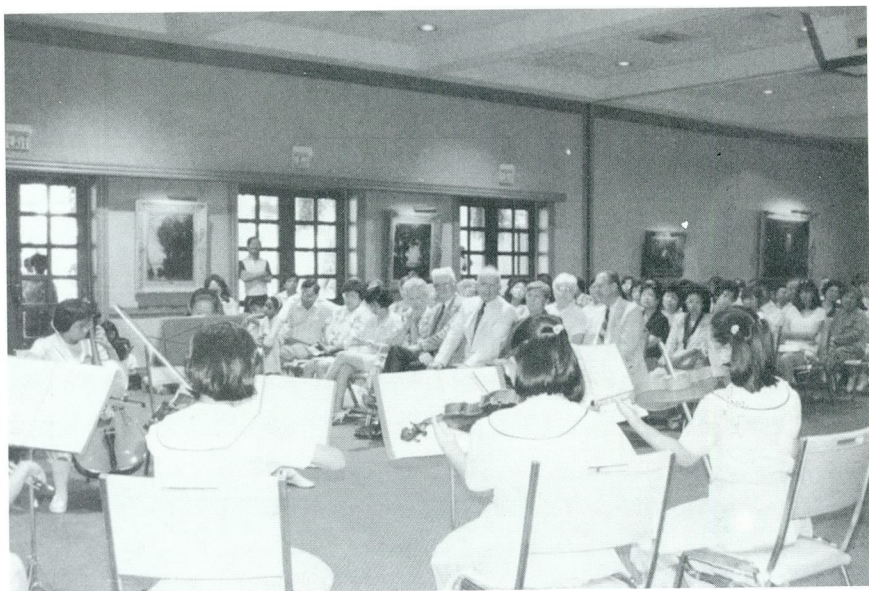
◁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빌딩이다. 창문이 없는 것은 자동차 전용주차고층건물이기 때문, 포트랜드시에 있다.



◁ 포트랜드시는 멀티노마군에 에워싸여 있다. 멀티노마 군청청사가 바로 포트랜드 시내에 있고 도로망은 차량들이 잘 소통되게 도시계획이 잘 돼 있다.

로스엔젤스 교외에 헌팅톤(도서관 예술품수집 식물원)이 자리해 있다. 그야말로 방대한 넓이의 식물원 옛서적 세계 각처에서 수집한 예술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된 이곳에는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문화공간이 헌팅톤 출입구 건물옆에 자리해 있다.

바로 이 문화공간에 자 유중국의 학생들이 중국 고유의 전통악기와 양악기로 해외연주차 헌팅톤에 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여주의 청소년들도 세종국악당에서 기량을 닦아 해외연주나들이를 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해 본 것이 꿈이 아닌 기필코 현실로 오리라는 신념을 가졌다.





▲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이상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분단 45년만에 처음 장관으로서 통일의 물고를 트기 위해 통일축구평양대회에서 수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연설하는 정동성체육부장관(90년 10월 11일)



◀ 황마와 여마의 고장을 상징하는 연출(여강종고)



세종대왕숭모제전기념 문화행사



세종문화큰잔치전야제에서 정동성국회의원(당시 국회내무원장)과 해촌마을 이장간에 주고받는
막걸리잔(아따! 여주사람들 술잔한번 크기도 하다)

세종벽탑문화봉사상

애향심 제고와 자긍심 부여

1986년 세종대왕님의 얼을 기리고자 여주의 맥을 이은 왕후들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 여성위원 20명이 자금을 10만원씩 각출하여 세종벽탑문화상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주문화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한 도예부문 세종벽탑문화상을 수상한 도예가 신근수씨가 앉아 있다. (화살표)



세종대왕숭모제전기념 문화행사



세종문화큰잔치전야제에서 정동성국회의원(당시 국회내무원장)과 해촌마을 이장간에 주고받는
막걸리잔(아따! 여주사람들 술잔한번 크기도 하다)

세종벽탑문화봉사상

애향심 제고와 자긍심 부여

1986년 세종대왕님의 얼을 기리고자 여주의 맥을 이은 왕후들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 여성위원 20명이 자금을 10만원씩 각출하여 세종벽탑문화상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주문화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한 도예부문 세종벽탑문화상을 수상한 도예가 신근수씨가 앉아 있다. (화살표)



명예대회장 정동성국회의원
여주문화원장 안금식
여주문화원 이사장 박광식



최초의 세종벽담문화상 운영에
크나큰 업적과 이정표를 아로새긴
운영위원들.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여주의 노래를 부르는 여주국교
새마을 어머니회 합창단

경기도지사의 감사패를 여주군수로부터 전수받는 여주문화원장



①



②

- 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활동한 안금식위원이 임사빈
도 지사의 감사패를 홍종대 여주
군수로부터 전수받음.
② 향토문화의 기수로서 세종문화큰잔치
를 이끌고 있는 여주문화원장

제1회 여주군 문화상 시상

● 지역사회개발부문/김종성 ● 교육부문/민달호 ● 학술훈부문/이현구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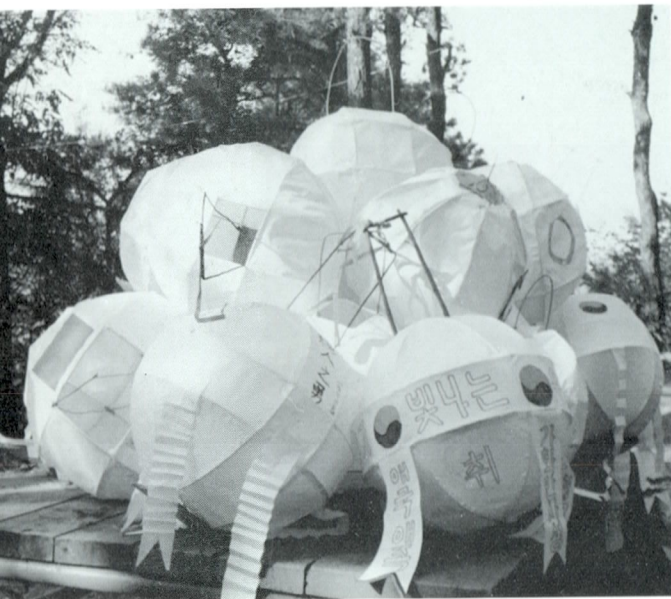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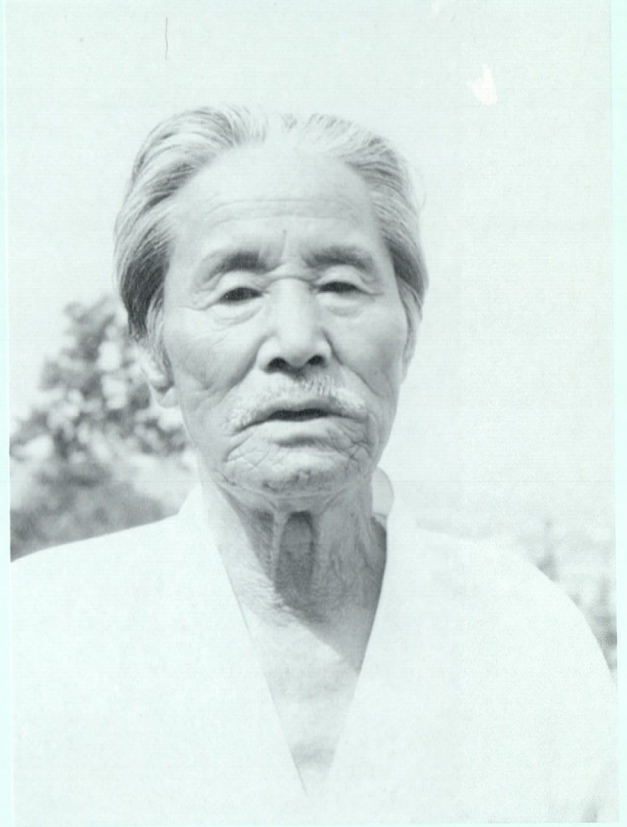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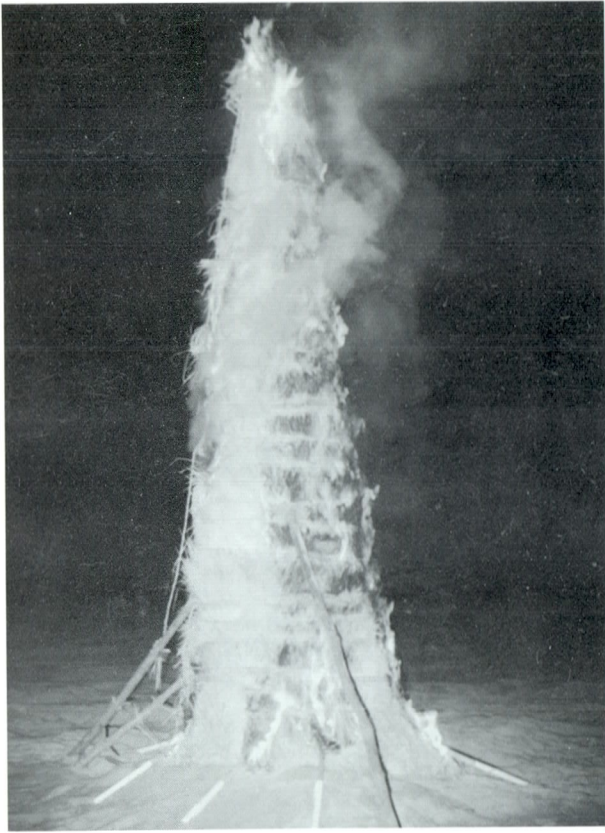


②

① 1990년 12월 22일
현재 여주군 문화상을 시상한
홍종대여주군수를 비롯한 여주경
철서장 전복우 여주군교장 김병순
여주군정자문위원장 김송현.

②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수상받는 김종성수상
자(당시:여주새마을금고이사장)

향맥을 이어온
여주무동의 마지막 전수자
한상용 옹 (83)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여주쌍용거줄다리기

춤사위 전수에 한몫을 한 전수자 한상용옹 1990년 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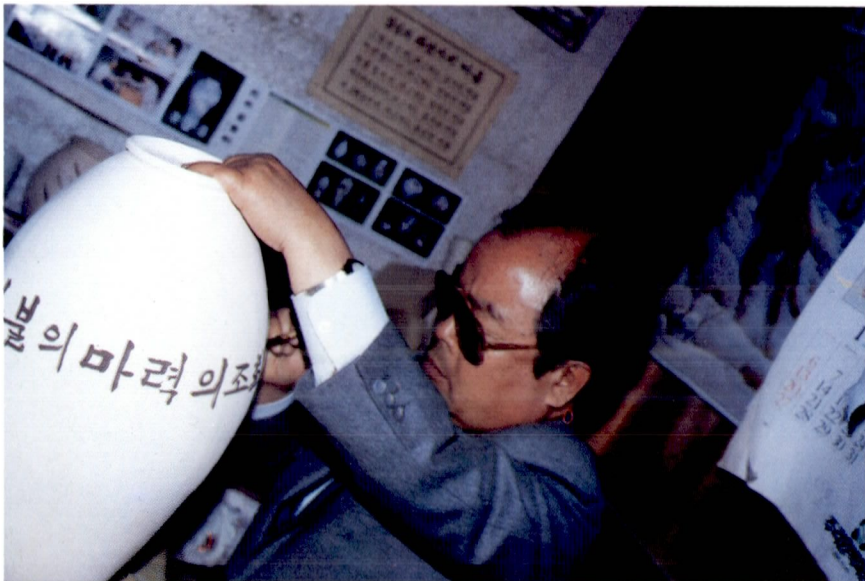
범이 소죽쑈 솟가에서 자고 갔다하여 마을 이름이 범솟이었다 한다.

범호(虎)의 한자 이 범호자를 써서 호리라 불리운 이 마을은 왜정하에 동명이 범호자는 한민족의 맥흐름이 연이어진다하여 범호자와 비슷한 곧 처자로 강제로 바뀌어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동명은 언제인가는 다시 호리로 바뀌어 민족정기를 되찾는 바탕위에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인사들의 주장인데 바로 이 부락을 지켜 산 한상용옹에 의해 여주쌍용줄다리기 무동들의 춤사위가 전수돼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여주쌍용거줄다리가 대통령상을 타는데 기여한 한옹의 삶은 민속기예인으로 오래도록 후세 사람들에게까지 그 고귀한 업적이 전해질 것이다.





여주도에게 발전을 위해 참석한 문화공보부 김윤환차관 정한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사를 위해 우정 정구천도예가가 적극 후원했다. (1985년 5월 15일)



고 정한모 문화부장관이 여주 어느 도예공장에서 휘호를 쓰고 있다.



문학지망생들인 문예강좌문학반 주부들에게 여주도자기를 설명하는 안금식여주문화원장

초벌구이를 끝낸 생활자기



중국(대만) 미술가들과 여주도예인들과 문화교류를 위해 은성 김종성도예전시관에서 청심 김영기 유광춘도예가들 벽촌배동준화백이 교류역할을 주선 추진했다.



미국 로스엔젤스 헌팅톤에 보존된 명품도예 여주도자기가 해외로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생활관습 문화등을 여주도예가들이 세계여행을 통해 많이 수렴해야 한다.



마래리 거북놀이 전수마을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변역식 이장을 비롯한 동민들의 적극
적인 열의와 동참으로 도대회
에 나갔던 마래리거
북놀이



여주문화원이 발굴하고 여주군 문화공보실이 복원하여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미국 오레곤주
에 거주하는
세계소수민족
연합회장이며
신임용근회장의
수백년 담수그린
속에 집이 있고
폐인의 배모양처럼
로 설계된 집으로도 유명하다.



제2회 세계한민족대회
장을 지내고 고향 어주를
방문 김정부 총동창회장의
관으로 임용근 회장 환영의 밤
을 가진 자리에서 도자기에
을 그린 도예작품을 청심 김 영
작가가 기증하고 있다.

임용근회장의 집뒤에 자리한
야외 휴식공간



1990년 3월 18일 롯데월드
에서 제1회 세계한인상공인
서울총회를 이끄는 임용근대
회장



홍종대 여주군수를 방문한
임용근씨내외와 오례곤주 한
국일보지사장 김현수씨등과
멀티노마와 여주군과의 자매
관계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임용근회장에게 고장의 명예
를 세계에 빛낸 큰업적을 선
양기 위한 공로패를 증여하
는 여주문화원장

KBS정혜선 프리랜서와 인터
뷰하는 임용근 대회장





△ 유네스코 후원으로 사람과 집
동남아 순회 작품전시가 군민
회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있었고



◁ 또 은모래벌 사진전이 여주새
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여주 출
신 임성규사진작가 원용문 문
학박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
황리에 있었다.

▷ 매년 세종대왕숭모제전기념 문
화부후원으로 여주문화원과 시
조생활사 공동 주관으로 효종
대왕능재실앞에서 전국시조백
일장을 갖는다. 장원은 문화부
장관상장을 타며 등단이 인정
된다.





△
여주사진동우회장 (이영완) 이
작품소개를 하고 있다.

▷
여성목관악기 5중주단 대신종
고에서 청소년을 위해 연주



유네스코 사진전의 사람과
집의 장면들 ▷





박영호 MC와 KBS라디오
 생방송
 방송은 여주문화여주도자기
 여주쌀 여주의 음식 문화등
 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안금식여주문화원장은 그동안
 TV 및 라디오 여주방송
 을 132회나 실시하여 지역
 홍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손자병법 2회분을 아주
를 배경으로 촬영. 지
역 관광 선양에 기여
방송 감독과 헬먼트들과
기념촬영



여주의 향토문화를 이끌어 주는 정동성국회의원과 여주문화원 중진들

향토문화비 건립추진 비문 문안

아스므라한 먼 후일
이 고장의 뜻있는 후예들이
우리들에게 묻거들랑
이렇게 전해 주세요
황려 사람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즐기찬 기풍을 진작시킨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값진
향토문화의 유산을
여강변에 아로새겼다고,

1990년 1월 3일

여주문화원장 안금식 문안작성

언제인가는 여강변에 향토문화
비가 세워질 날이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발전에 소리없이 역할 공헌한 변수근씨

여주문화발전에 모체역할을 한

여주문화원 임원들의 면모



맥맥히 연이어온
빛나는 향토문화 창달도
따지고 보면
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단법인 여주문화원은
오늘도
개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을 존중하며
이땅에
문화의 낙토를
우리 손으로 일구고자
언제나
머리 조아리며
군민과 더불어 굳게 손잡고
미래를 향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줄기차게
보람찬 행진을 이어
나가고 「——」
있습니다.

— 임직원일동 —

향맥을 이어가는 향토문화와 지역개발에 기여한 여주문화원의 발자취

- 여주문화와 지역경제등 이미지 부각을 위한 방송추진 132회(KBS, MBC)
- 69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검찰청 여주지청 부지 5,000여평을 확보하는데 이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은모래벌 금모래벌 명명등 홍보활동 전개로 지역관광 개발에 기여
- 전승도에 개발과 중견작가 육성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증대 도모에 이바지
- 여주전설 발굴, 정리 및 경인일보 기고로 지역이미지 부각
- 세종문화큰잔치 기틀정립으로 향토문화의식 고양
- 세종벽담문화상 제정으로 군민들의 애향의식 고취와 긍지감 부여
- 송모제전 전국백일장으로 작가배출 및 여주문학 발전에 기여
- 원부리얼답교놀이, 해촌낙화놀이, 여흥별산대놀이, 마래리 거북놀이, 혼암리쌍용거줄다리기등 민속놀이 발굴 및 전수와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여주쌍용거줄다리가 대통령상을 획득하는데 요체역할로 여주향토문화의 명예를 빛냄
-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하여 여주청소년 문화예술코너 설치
- 민족에 위업을 남기신 세종대왕의 얼을 잇는 세종국악당 및 몽고군을 척벽한 백운문학관건립추진역할수행
- 후학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다방면으로 학문탐구와 진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전개
- 여강문화의 정립을 위한 여주인물대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조성
- 황려문화 체계 정립을 위해 『여주민속놀이편』 「여주한시편」 「여주전설편」 「문화유적과 풍정」 「해방전야 여주소사」등을 발간
- 국도정 홍보위원으로 경기도내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며 국민계도와 가치관 정립에 이바지
-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해외순방(미주지역) 멀티노마방문 여주군과 자매관계 여주군수 의견전달 및 타진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향토문화의 사랑방

여주문화원 24년의 성원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 아득히 흘러온 여강을 따라 천년벽탑을 쌓고 민족문화사에 위업을 아로새긴 세종대왕님의 문화창조 정신을 기리며 맥맥히 연이어온 향토문화를 전승발전 시키고자 향토의 얼을 가꾸는(전통문화계승), 진선미를 추구하는(사회기풍조성), 가치 지향을 위한(애향의식고취) 등을 지표로 하여 1968년 2월에 설립된 여주문화원은 한결같은 동산지기의 마음입니다.
- 풍요로움이 넘치는 밝은 미래의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 오늘도 개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을 존중하면서 이땅에 문화의 낙토를 우리 손으로 일구고자 언제나 머리 조아리며 보살펴주신 높은 뜻을 더욱 받들어 정성어린 심혈로 향토를 가꾸는데 보다 더 정진하고자 하는 것이 여주문화원 가족의 의지이며 또한 신조입니다.
- 여주문화원 24년사가 점철하기까지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주셨던 고마운 모든 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고 숭고한 그 높은 뜻을 줄기찬 향토문화의 맥락속에 오래 오래 새겨가면서 더욱 빛나도록 기려가고자 하는 것이 또한 진정한 여주문화원의 자세입니다.
- 앞으로 서로 돕고 서로 믿고 아끼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더 가까워서 더욱 자상하게 보다 더 야무진 마무리로 더불어 창출하는 향토문화사의 이정표를 옹골차게 새겨나가는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임직원일동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봉사헌신한 임직원

원장:안금식 이사장:박광식 부원장:황용구 정용우 총무이사:박홍수 이사:박근출

이사:김영준 김창영 안창복 차용남 권재성 박명수 이용환 감사:김종성 박기석

직원:김진화

뒤표지:이영완사진작가(여주사진동우회장)의 작품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향토문화의 사랑방 여주문화원의 지표

■ 향토의 얼을 가꾸는 (전통문화 계승)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회기풍 조성)
가치 지향을 위한 (애향의식 궤취)